

안대표 통합선언 카운트다운... 국민의당 연내 분당 가시권

지역순회 당원간담회 마무리 反통합파 “같이 갈 생각 없다” 오늘 의총 끝장토론 ‘분수령’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일 지역순회 당원간담회 일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카운트다운'이 사실상 시작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제 통합 선언만 남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통합을 선언하고 내달 중순 정당대회를 열 수 있다는 각종 ‘시나리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합 반대 진영의 반발도 여전해, 이대로라면 20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연내에 당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며 막판 조정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대전·충청 지역위원장 공동토론회’에 참석, “전국단위 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대에 실패한 정당은 소멸한다.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선의 대안이 바른정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그동안 당원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했고, 안 대표의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달 중순에는 통합 정당대회에 나서야 하는 만큼 이번 주 안에 바른정당과 통합선언을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준비에 2~3주 시간이 필요하고 내년 지방선거 ‘D-150일’이 내년 1월 14일이라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일요일인 1월 14일에 전대를 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통합 반대파들의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기에 때문에 이처럼 통합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진회담이 이뤄지는 등 당내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모임에 참석한 천정배 의원은 전날 바른정당 의총에서 ‘천정배, 박지원, 정동영 의원을 배제하자’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 “나도 그 사람들(바른정당)과 같이 갈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확실한 선을 그었다. 정동영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 안철수 대표의 통합 추진에 대해 “당을 지키겠다는 사람까지 보듬어서 데려가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주목된다. 그 이후 바른정당 의원이 몇 석 남겠냐”라며 “계산기 두들겨 통합하는 발상으로는 모두가 죽는다”라고 가세했다.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평화개혁연대는 이날 오후 전주에서 토론회를 열고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통합은 반개혁·반민심·반문재인을 위한 적폐 통합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통합 반대파의 요구대로 20일 통합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의원총회가 통합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통합론을 둘러싸고 극한 갈등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당내에서는 연내에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분열을 막기 위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주선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15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파국을 막기 위해 통합 찬반 진영 간의 대화채널 구성을 제안했다.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대표와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19일 대전에서 열린 양당의 선거·정책연대 토론회에 참석해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 귀국 손학규 ‘난파선’ 국민의당 구할까

“귀국 후 무슨 역할 할지 보겠다” 통추위·비상대책위원장 등 거론 통합갈등 해결 전면 나설지 주목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21일 귀국하는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고문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체류 중인 손 상임고문은 19일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 “귀국 후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당내에서 급부상한 ‘손학규 역할론’과 관련한 거듭된 질문에 “(한국에) 들어가서 (당 내외) 사정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할지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현재 국민의당 내에서는 통합 찬성, 반대파 간 극심한 대립을 절충하는 방안 중 하나로, 안철수 대표 대신 손 상임고문을 통합국민당의 전면에 내세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안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대신 손 상임고문이 통합추진위원장이나 비상대책위원장 등 모종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손 상임고문이 5·9 대통령선거 경선 당시 통합론을 내세웠던 만큼 통합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손 고문은 당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총대를 메는 역할을 자처해 왔다. 지난 2007년 대선 참패 이후 격랑에 휩싸였던 대통합민주신당의 당 대표를 수락해 18대 총선을 진두지휘, 81석이라는 성적을 거두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는 여당인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된 선거여서 누구도 당 대표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

손 고문은 이후 2년간 춘천 집거에 들어갔다가 2010년 10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 당 대표에 올랐다. 그리고 2011년 4·27 분당 보궐선거 때도 손 전 대표는 한나라당 텃밭으로 불리는 성남 분당을 에 출마해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꺾는 대기업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번 국민의당의 당내 갈등은 한 정치인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손 고문의 선택이 어려울 것이라 분석도 있다. 통합 찬, 반으로 나뉜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통합론 자체보다도 안 대표에 대한 반감, 안 대표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더 문제”라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손 고문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도 있다.

한편, 지난 10월초 미국 스탠퍼드대 초청을 받아 방문 연구원 자격을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손 고문은 오는 27일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경필 “바른정당으로 출마 가능성 없다” 국민-바른당 통합 힘빼고 한국당 복귀?

“국민의당보다 자유한국당 우선” 중도통합 영향·추후 행보 주목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으로 출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출렁이고 있다.

남 지사가 바른정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양당 통합 논의에 그의 발언과 추후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남 지사는 지난 18일 경기·인천지역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른정당은 옳은 길이었으나 실패했다. 당 내 자강파가 없다는 것은 비극”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것이 제일 좋는데 불가능하다면 이번엔 두당이 먼저하고, 다른 한 당과 연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가운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자유한국당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의 이러한 입장 표명으로 그동안 ‘선(先) 보수통합 후(後) 중도통합’을 주장해온 남 지사가 한국당으로 복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남 지사가 한국당으로 복귀할 명분도 어느정도 갖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남 지사는 이날 “김성태 의원의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당선과정에서 확실히 친박당의 이미지와 세력이 줄어들었고, 소멸되어가는 중”이라고 긍정평가했다.

남 지사는 지난달 30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통합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남 지사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먼저 통합할 경우, 바른정당 탈당 여부에 대해 “이뤄지지 않을 얘기”라며 일축했지만 여전히 독자 탈당, 동반 탈당 뒤 한국당 입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양당간의 통합 논의도 일부부분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바른정당 소속의 유일한 광역단체장이자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남 지사의 관심이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통합정당보다는 사실상 한국당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재미난 광산구 이야기가 통통

무료월간지 광산구보 받아보기

한 권쯤 곁에 두면 일상이 유익해지는 친구 <광산구보>. 광산구의 정책, 문화, 생활정보, 역사, 사람, 자연을 정갈하게 담아 우편으로 배달해드립니다. 바로 지금 신청하세요. 광산구민 아닌 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구독신청

- 문자 신청 010-2964-8114 (광산구 소통폰)
- 전화 신청 062-960-8357
- 이메일 신청 gs_press@daum.net
- 광산구 홈페이지 www.gwangsan.go.kr 에서 신청

구독신청 바로가기